

조경수의 다양한 활용

# 08 울동자연공원, 나무 단상

8월말, 여름이 막바지 기승을 부리는 시기. 모두들 휴가는 다녀오셨는지, 사실 여름이라고 해서 모두가 짐을 꾸려 휴가를 떠날 수는 없기에, 목적지가 멋진 곳이든 아니든, 시간이 짧은 길든 간에, 어딘가로 떠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일 터.

이런 저런 일로 휴가는 뒤로 미루고, 도시의 여름을 견뎌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더위를 잠시 잊을 수 있을까? 사람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도심 근교에 있는 자연과 닮은 공간을 찾아 잠시나마 휴가의 기분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해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울동자연공원은 원래의 자연을 최대한 살려 조성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공원이라는 느낌이 비교적 덜한 곳이다. 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풍부한 자연과, 너른 호수, 작은 계류, 그리고 자전거 도로와 번지점프장이 있는 울동공원을 찾아보았다.



조수연

(이디자인 환경생태기술연구소 이사)

E-mail : ezign29@naver.com

www.ezign.kr

산책로에서 만난 백합나무, 앞으로 더 많은 곳에 가로수로 활용되길.

## 울동자연공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울동에 위치한 울동공원의 총 넓이는 2,637,316㎡이다. 이중 공원 시설로 개발된 넓이는 308,648㎡로, 실제 자연으로 이루어진 면적이 훨씬 넓다. 물론, 자연으로 이루어진 산림 지역은 활발하게 이용되지는 않고 있다. 개발된 지역에는 잔디광장, 사계절 꽃동산, 호수변을 따라 있는 갈대밭, 어린이놀이터 등이 있으며, 특이한 시설로 번지점프대와 최근 조성된 책테마파크 등이 있어 가족 단위의 관람객이 많은 편이다.

사실 필자도 울동공원을 찾아 번지점프를 한 경험이 있다. 번지점프를 하려고 기대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점프 후에는 추락을 체험할 것'이라고 전하고 싶다. 올라갈 때의 긴장감과, 아래를 내려다보는 스릴 이후에는 추락이 존재할 뿐이다. 아무튼 번지점프는 남태평양 펜타코스트 섬의 원주민들이 행하던 성인식 풍습에서 유래된 것이라 하는데, 이 성인식을 치르면서 그들은 강인한 도전력과 의지력을 키우게 되었다고 한다.

## 산책로에서 만난 나무

공원에는 기존의 산줄기와 계류가 호수 및 다양한 시설들과 만나고 있어 다양한 자연환경을 접할 수 있다. 실제로 계류에서 돌을 들추고 무언가를 잡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잠자리채를 들고 잠자리를 쫓는 아이들도 많이 보인다.

이러한 자연공원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 중의 하나는 산책이다. 우리가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삶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이다. 늘 급하게 정신없이 달리고 있는 우리 인생에서 걷는 것은 곧 느린 것이고, 여유와 많이 가까운 이름이기 때



산책로 수세미 / 터널을 이루는 수세미 덩굴과 수세미 열매

문이다. 그리고 산책 중에 만나는 색다른 풍경이나 나무들은 산책의 즐거움을 배가시켜 줄 터이다.

산책을 시작하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나무가 백합나무. 잎이 튜립모양을 닮아서 튜립나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꽃은 5~6월에 녹색을 띤 노란색으로 피고 열매는 폐과로서 10~11월에 익는다. 잎이 넓고 예뻐서 많은 곳에 쓰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지만 실상은 그렇게 많이 이용되지는 않는 듯하다.

조금 더 걸으면 수세미 덩굴로 이루어진 터널도 만날 수 있다. 더운 여름 그늘로 된 터널을 만나는 것에서 새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다. 게다가 기대하지 않았던 수세미 열매를 만나는 것도 즐겁고, 더 걸어가니, 산줄기가 산책로와 만나는 곳에는 밤나무의 작은 밤송이가 더운 햇빛을 받아 제대로 익어가고 있었다. 조경수로서 다양한 유실수를 사용하는 것은 이처럼 늘 이용객들에게 새로움을 전달한다.

죽은 나무를 이용해 심겨진 덩굴도 보이는데, 최근에는 폐목을 다양하게 연출하는 풍경이 많아 반갑다. 굳이 죽은 나무를 캐내고 새로 심는 것보다 이렇게 이용하는 것도 좋겠다. 산책로 주변에는 아름다운 꽃창포도 만날 수 있었고, 놀이터 입구에서는 풍성하게



자란 마로니에도 만날 수 있었다. 다양한 나무를 접하며, 다양한 유실수를 접하며 걷는 산책길은 더운 여름을 식혀줄 수 있는 잠시 안식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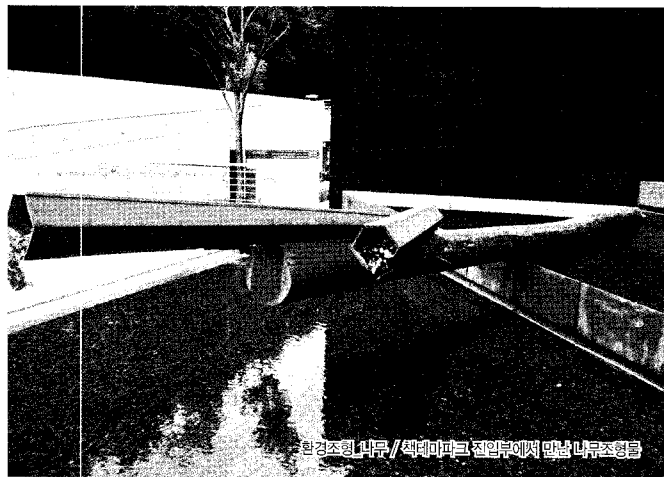
### 작품의 소재가 되는 나무

올동공원에 대한 원고를 쓰기로 마음먹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새에게 가는 길>이라는 나무를 이용한 작품이었다. 나무의 가운데를 사람 모양으로 파내고 앞에 있는 커다란 호수에 찾아오는 새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한 작품이다. 언뜻 보면 '나무들 앞에 그냥 사람 모양을 음각한 조형물이 있네' 하고 지나가겠지만, 자세히 설명을 들여다보면 '이 작품은 자연을 상징하는 새의 서식지를 바라보며 문명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자연공간을 지킬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공간입니다'라고 설명이 시작되고 있다.

참 재미있는 생각이다. 나무속에 들어가서 새를 바라본다는 것은 자연 속으로 직접 들어가 체험함으로써, 자연에 다가가는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나무가 될 수도 없고, 새가 될 수도 없지만 정말 나무속에 들어가 가만히 새를 바라본다면, 조금은 자연의 일부가 된 듯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새도 안심하고 먹이를 찾는 일에만 집중하지 않을까.



신작트 나무 / 고씨목을 이용해 심은 덩굴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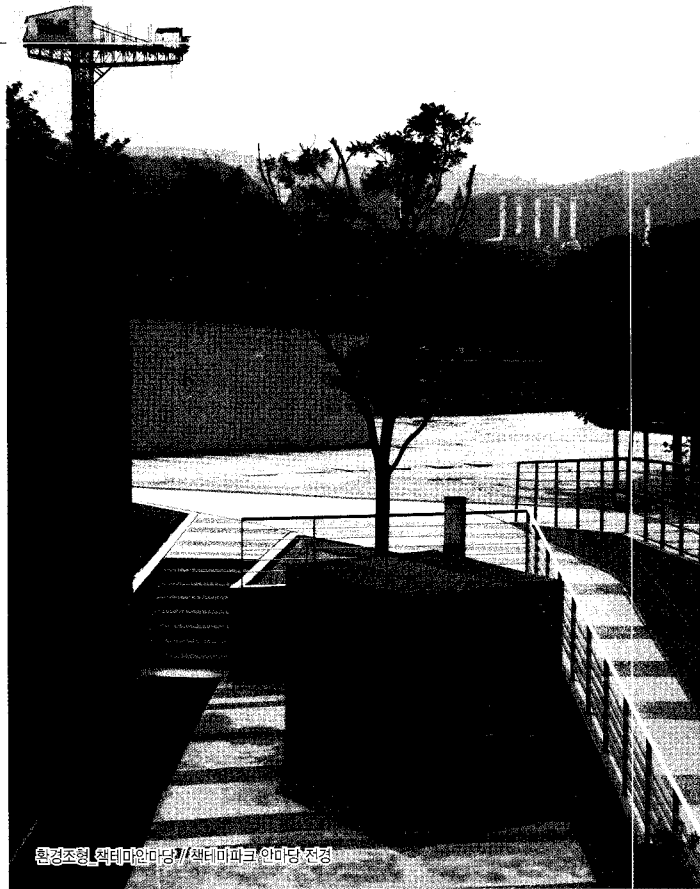
한경조형 나무 / 석대마리 전일부에서 만날 나무조형물

더 안으로 들어가면 광장 뒤로 책 테마파크가 조성되어 있는데, 진입부에는 진짜 나무가 아닌 나무 모양으로 만든 조형물이 하나 있다. 수반 위에 조성된 나무, 커다란 통나무 위로 가짜 잎이 담긴 속 빈 나무가 있다. 전혀 나무가 아니지만 나무를 상징하는 조형물. 결국 책은 나무를 원료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니 '책테마파크'라는 상징적인 공간에 나무 조형물이 등장했을 것이다.

책테마파크는 공원 속에 숨겨진 듯 위치해 눈에 잘 띄진 않지만, 건물과 파크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경사면을 오르게 되어 있는 독특한 형태이다. 1층에는 책을 읽거나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탁자와 장서들이 구비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생각해보면, 공원에는 나무가 심겨있지만 한 것은 아니다. 나무는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 죽은 나무를 이용해 시설물을 만들기도 하고, 폐목을 있는 그대로 이용하기도 한다. 혹은 폐목을 사면을 쌓는 재료로 이용하기도 하고, 가공을 거듭하면 책으로 거듭나기도 하는 나무. 조정하는 사람들에게 나무는 놓칠 수 없는 소재이고, 이제는 그 이용 방법도 다양해져 있다. 죽어 있든, 살아 있든, 혹은 나무 모양이든, 나무를 갈아서 만든 것이든.

다양한 나무의 활용방안을 더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더불어 나무를 넘어서는 또 다른 소재들을 개발하고, 제품화해서 조경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해야 할 때가 이미 도래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



환경조형 | 책테마파크/책테마파크 입마당 전경

환경조형 | 새



산책로 데크내에 / 아름답게 만들고 이틀드리나무는 늘 시민을 즐겁게 한다